

2012 10.21 연중 제 29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서 53,10-11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 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리라)

제 2 독서 : 히브리서 4,14-16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복 음 : 마르코 10,35-45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혹시 죽음에 대하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삶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몇명이나 슬퍼서 울을까요? (아마도 '잘 죽었다'고 하지는 않을런지요?) 김 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리며 그 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그분의 삶을 회상하며 깊은 감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며칠전 뉴스에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수단의 브라스밴드가 신부님의 조국을 방문하여 신부님의 무덤에서 연주를 하며 신부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이 다음 돌아가셨을때에, “아하 그분은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정다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더 데레사는 정말로 조그마한 분이시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뵈적이 있는데, 저도 작지만 제가 같이 서보니 제 어깨에 밖에 안 되실 정도로 키가 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때에 온 세계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거렸습니다. 내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죽은 후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이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성서를 보면 묘하게도 이때부터 사도들은 싸우기 시작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난후부터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것만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 하느님을 제대로 볼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때 이세상의 고통들을 인내하고 감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등지고 사는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 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려 노력하여야 할것 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내 형제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하는 면을 보려 노력 합시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며 살고 있는지? 내가 죽었을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녀을 잃고 울어 줄수 있는지? 오늘 미사중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